

서울 YMCA조사 청소년 스포츠신문 구독실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의 82.9%가 스포츠신문의 연재만화를 읽은 적이 있으며 이를 보고난 뒤 성취감을 느껴본 학생이 전체의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기독교청년회가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1천7백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스포츠신문 구독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스포츠신문 만화를 보고 난 뒤 느끼거나 행동한 것으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응답하라는 설문에는 조사대상 학생의 29.8%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웠다', 25.1%가 '예전보다 성적 공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예전보다 성적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21.3%), '성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다'(21.0%), '평상시 감정억제가 힘들어졌다'(9.6%),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였다'(5.3%), '직접 성행위를 하였다'(4.5%)의

순으로 응답이 나와 스포츠신문 만화가 청소년들의 성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포츠신문을 보는 횟수는 36.4%가 '가끔 보는 편(1달에 3~4번 이상)'이고 12.1%가 '많이 보는 편(1주 3~4번)'이며

기사(7.7%), 가요·팝송(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신문의 입수방법은 조사대상학생의 31.9%가 '집안 식구가 가져온 것을 본다'에 응답했으며 16.7%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져온 것을 본다'고 해 현재 학교에서 스포츠신문이 상당히 돌려 읽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역이나 버

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주의를 촉구하는 대목이다. 이외에 '단지 호기심 때문에'(16.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15.7%),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에'(12.0%)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으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포츠신문을 보는 학생도 3.5%나 돼 예상외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다.

중고생 83% 연재만화 읽은 경험있어 '부끄러웠다' '성적 충동 늘어'등 반응 27% 가판대서 직접 사봐...접근막을 대책 시급

'하루도 빠지 않고 보는' 학생도 3.1%에 이르렀으며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이들이 스포츠신문을 볼 때 빼놓지 않고 보는 내용은 역시 연재만화가 33.7%로 가장 많고 영화계기사(18.1%), 프로야구·프로축구기사(13.1%), 1면 머리

스 가판대에서 직접 사보는 학생도 27.1%로 나타나 스포츠신문사들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가판대에서만 만화부록을 끼워 판매하는 것이 실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학생들이 스포츠신문을 보는 이유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가 32.3%인 것으로 나타

또 학생들의 64.5%는 스포츠신문의 만화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고 스포츠신문이 선정적이라는 응답은 49.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6%로 나타났으며, 폭력적이라는 응답은 40.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스포츠신문이 청

소년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 기독교청년회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스포츠신문 음란폭력조장공동대책위(공대위)'는 27일 오후 오는 12월15일까지 스포츠신문이 현저한 개선을 보이지 않을 경우 광고제품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을 요지로 하는 공대위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스포츠신문 만화의 음란·폭력적인 장면(컷)의 비중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주제에 있어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당초 27일부터 시행하려던 광고제품불매운동을 오는 12월15일까지 보류하고 주시기간을 갖기로 했다.

공대위는 광고주들이 스포츠신문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촉구하고 주시기간중 현저한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12월1~15일까지 △지면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제품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제품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